

2011.10.31 미래정책연구실

## □ 제37차 세계식량안보회의의 주요 의제

### 1. FAO(2011.10.26) 주요 내용

※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37차 세계식량안보회의(CFS: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)에서는 “가격 변동성 완화”, “소규모 자작농에 대한 투자 확대”, “여성소작농의 인권 향상”에 대해 집중 논의됨.

#### <가격 변동성 완화>

○ 식량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곡물 시장에서의 투명성 강화, 정보 공유, 곡물값 급등에 대한 공동 대응 강화가 필요함.

- 이와 관련하여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 곡물 수출입 국가들이 지난 6월 G20 농업장관 회의를 통해 설립된 ‘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(AMIS)’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함.

※ ‘농산물시장 정보 시스템(AMIS)’은 각국에서 수집된 식량 생산량, 재고량, 가격 동향 등 관련 정보들을 분석해 식량 수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식량 가격 안정을 확보하는 장치임. 조기경보시스템(EWS)과 신속대응포럼(PRF)이 이 시스템에 연계 운영됨.

○ 식량가격 변동성과 바이오에너지 시장의 성장과 관련하여,

- 바이오에너지는 고유가 시대에 사회·경제적,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대체 에너지원이나 국제사회는 현 식량안보 수준을 고려하여 바이오에너지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회의 관계자는 밝힘.

○ 식량 가격 변동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들이 안정적인 경제성장,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지원 등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됨.

#### <소규모 자작농에 대한 투자 확대>

○ 세계식량안보회의는 세계 각국 관계자들에게 소규모 자작농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 및 민간 투자 확대, 농업 생산성 향상, 농촌 사회 활성화 등을 권고함.

- 농업정책과 공공투자의 우선순위는 소작농의 기반을 유지하는데 두고 이를 통해 전통적인 농업 생산기반 및 생물의 다양성 유지,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해야함.

- 이와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곡물 수확 후 손실 방지 대책,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소작농 육성 방안, 식량의 운송, 저장, 가공 등을 포함한 국가 또는 지역 단위 식량 시장 활성화 대책도 집중 논의됨.

○ 세계식량안보회의는 국제농업연구협의단(CGIAR: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)의 운영 강화 등 농업연구와 연구비의 확대를 요구함. 이를 위해 국제 농업관련 연구기관과 연구 자금 후원자간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함.

#### <여성 소작농의 인권 향상>

○ 세계식량안보회의는 여성소작농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과 경제력 향상을 위해 농업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촉구함.

- 여성소작농은 농업노동력의 40%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농업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. 이러한 여성소작농의 역할이 식량안보 및 기아와 빈곤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함.

○ 또한 여성소작농의 건강, 교육, 영양상태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하며, 여성소작농에게 토지를 포함한 생산 수단의 소유 권한도 부여해야함.